

화순군, 옛 탄광 폐광지 '관광단지' 민간 투자 수요 조사

11일 투자 설명회 개최...22일까지 투자 의향서 접수 2538억 투입 27홀 골프장·복합리조트·식물원 등 조성

화순군이 옛 화순탄광 폐광지를 체류형 관광복합 단지로 만들기 위한 민간 투자 수요조사를 벌인다. 화순군은 오는 22일까지 대한석탄공사 옛 화순 광업소 부지에 조성 예정인 복합관광단지 등 민간 사업자의 투자 의향서를 받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화순군이 추진하는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을 위한 수요 조사의 성격으로 진행된다. 민간 투자 의향 자료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통과

하기 위한 참조 자료로 쓰인다. 화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화순군 동면 옛 화순광업소 일대에 2029년까지 221만4000㎡ 규모로 복합관광단지, 농공단지, 스마트팜(첨단 농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비 870억원과 지방비 848억원 등 총사업비 5643억원이 들어간다. 민간 투자 규모는 3925억원에 달한다.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 121만5151㎡(54.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99만 8082㎡(45.1%), 보전관리지역 363㎡(0.1%)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지 내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 5만7671㎡(2.6%)가 포함됐다. 화순군은 이번 투자 의향서 접수와 함께 '화순군 전략사업 기본구상안'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추진한 연구용역에 따라 마련된 사업 방향이다. 사업 대상지는 친환경 관광기반시설(143만 1000㎡), 복합리조트(6만8000㎡), 식물원(37만 7000㎡) 등으로 구성된 '복합관광단지'와 '농공단지'(22만7000㎡), '스마트팜 단지'(11만1000

㎡), '경도'(7.5km) 등으로 나뉜다. 복합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은 27홀 규모 대중제 골프장으로, 2538억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인 복합리조트에는 1498억원, 식물원 719억원, 농공단지 490억원, 스마트팜 단지 398억원 등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옛 화순광업소 회의실에서 민간 사업자 투자설명회를 연다.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 접수와 별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민간 투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기 폐광지역인 화순과 강원 태백, 삼척지

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주관 '석탄공사 산하 3개 광업소 부지 활용 대체산업 수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국비 10억원 3개 시·군 각 5억원 사업비 규모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서민술 화순군 도시과 담당자는 "복합관광단지 등 폐광지역의 투자의향서 접수는 투자 의향이나 농공단지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개발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동시에 예비 타당성 통과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며 "화순탄광 경제진흥사업의 경제적 가치의 가능성을 기업들이 많이 알아주고 다양한 개발 구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재제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음악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23~25일 '메타뮤직페스티벌' 메타세쿼이아길·원도심 일원서 코요태·박명수·드론 레이저쇼



담양군이 '2023 담양메타뮤직페스티벌(23~25일)을 앞두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을 화려한 성탄 조명으로 꾸몄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담양 메타프랑스와 원도심 일원에서 성탄 축제를 연다. 사흘간 열리는 '2023 담양메타뮤직페스티벌'은 '산타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진행된다. 담양군은 겨울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랜드 일원과 중앙공원에 성탄 분위기를 담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축제장 곳곳에는 특색 있는 촬영 공간과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배치했다. 이번 축제 주 무대는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안에 마련했다. 브라스밴드의 거리 행진과 드론 레이저쇼 등이 개막 공연을 꾸민다. 오는 23일과 24일에는 하이키, 프로미스나인, 위아이, EXID, 노라조, 코요태, DJ 박명수, DJ 펠리, DJ 핸들빈, DJ 춘자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25일에는 박구윤, 윤희미, 서지오 등 트로트 공연과 지역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성탄 체험 행사와 '산타를 이겨라' 행사도 마련한다. 담양의 우수한 농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공간도 만날 수 있다. 인근 소아르테복합예술단지에서는 '산타왕을 찾

아라' 행사를 진행하고, 중앙공원 거리 공연, LP음악축전쇼 행사 등도 연말 분위기를 돋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남녀노소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담양이 전남의 겨울철 관광을 선도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을 중점으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내년 노인 일자리 3805명 모집

나주시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3805명을 모집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은 60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나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20곳과 사업 수행기관 6곳에서 4개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 모집 규모는 3805명으로, 지난해보다 465명이 늘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국비 50%·도비 15%·시비 35% 비중으로 총 16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2900명), 사회서비스형(605명), 시장형(200명), 취업 알선형(100명) 등 총 4개 분야로 나뉜다. 일자리 사업은 각 읍·면·동과, 동부노인복지

관, 중부노인복지관 주관의 '직접수행 사업'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사)도울인복지회 등 4곳 '수행기관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일자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읍·면·동,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보건복지부 선발기준표에 따라 참여자를 오는 22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화순경찰, '참여치안 전개' 노인회와 협약

화순경찰은 5일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회장 김중희)에서 참여치안 전개의 일환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목적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최근 화순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사망자 12명 중 고령자는 4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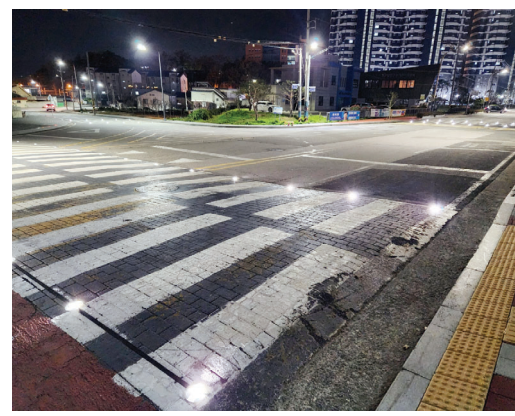
화순경찰서는 잇따른 어르신 보행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계절별·데마별 교통안전 계획 수립 시 어르신들이 참고할 수 있는 카드 뉴스 등을 제작·배포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함평군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LED 유도등으로 밝게

학다리교등학교 앞 등 4곳

함평군은 야간 차량 통행이 잦은 4개 지역에 '밤길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진>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비행기 활주로처럼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LED 유도등을 일직선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밤이나 눈비가 내릴 때 횡단보도가 잘 보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은 학다리교등학교

교 앞 3곳과 교통사고가 잦은 함평성당 앞 1곳이다. 함평군은 이번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의 환기와 운전자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줌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삼익 함평군수는 "앞으로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2월호

2023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구멍가게가 사라진다

- 추억의 박물관 구멍가게, 우리 곁에 온기로 머물러 주길
- 거기 늘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동네 구멍가게'
- 그리움의 풍경, 책과 영화로 만나

만발 숲길 해안 도로 불교 유적

천년가람 불갑사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물우산 행복숲 만발 황토길 | 침산 타워 |백승해안도로 모시떡의 변신 '다솜모시송편' | 2대 지킴이 '법성포 뉴타운클럽' 서해 바라보며 노을 즐기는 카페 '셀부르'

2023 문화계 결산

코로나팬데믹 통과한 예술의 체취 더 진했다

예향 초대석

40년 동학연구 한길, 역사학자 박맹수
"대한민국 대전환, 동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기획 - 新전남관광여지도 ⑦

한해 마무리는 전남에서 전남 해님이 명소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⑦

대한민국 맛의 수도, 목포 평화광장, '맛의 거리' '연인의 거리'

화제의 전시-황영성 초대전

전남도립미술관 '우주가족 이야기'전

화제의 예술가와 친구들 ①

조각 빛다 흙에서 새싹 난 작품 국전서 '대통령상', 조각가 박병욱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②

돈·권력과 '삼위일체' 마약, 영화와 세상을 증폭시키다